

특집 I

창간1주년에
부쳐...

협회지
정보화사회에
바란다

전문성을 띤 협회지로...

金 道 鉉

(국민대학교 정보공학과 교수)



정보통신진흥협회가 발간하는 월간 「정보화 사회」의 애독자로서 협회지에 투고하게 됨을 먼저 이 지면을 통하여 협회에 감사를 드린다. 경제와 사회구조가 점차 복잡 다양해지고, 과학 기술이 급속히 발전을 함에 따라 인간의 지적활동 범위도 확장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파생되는 정보도 방대한 규모로 축적되어 가고 있다. 현대는 정보의 산업화, 산업의 정보화, 가정의 정보화, 사회의 정보화라는 고도의 정보화 사회라 일컬을 만큼 정보의 교환을 사회생활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이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산출되는 정보를 어떻게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기에 편리한 형태로 정리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최근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기존 사회의 제반 구조를 바꾸어 가고 있으며, 그중 정보기술의 발전에 의한 정보혁명은 인류에게 정보화 사회라는 새로운 사회를 제시하였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사회의 가치가 물질 중심에서 정보로 전이될 것이며, 경제체로서의 정보를 중심으로 산업구조, 사회구조 등의 재편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정보는 어느 개인이나 어느 특정기관에 의해서 만이 생성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 전역에서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한 눈에 신속하게 찾아 보기란 어렵다. 한편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정보를 하루라도 접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 떨어지게 마련이다. 이렇게 창출되고 있는 정보를 동시에 수집하여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에 제공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차제에 본 협회가 「정보화 사회」라는 협회지를 출판하여 독자들에게 이런 요구를 충족시켜 주게 된 것을 매우 다행한 일이라 생각한다. 「정보화사회」에 앞으로 바랄 것이 있다면 첫째, 협회지의 독자가 일반 대중임을 감안, 좀더 부드럽게 편집되었으면 한다. 둘째, 연중기획의 게재 내용이 좀더 전문성을 띠며, 구성되었으면 한다. 「정보화사회」誌가 더욱 알찬 내용을 지닌 회지로 발전하길 바란다.

**정보를 동시에 수집하여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에
제공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차제에 본 협회가 「정보화 사회」라는
협회지를 출판하여 독자들에게 이런 요구를 충족시켜
주게 된 것을 매우 다행한 일이라 생각한다.**